

# 오늘 하루 무심코 내가 뱉는 저주, 내가 듣는 저주

‘극혐’. 요즘 온라인과 실생활에서 난무하는 말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극도로 혐오한다’를 줄인 단어로 무언가가 정말 싫을 때 활용하는 신조어라는 걸 설명하는 일 자체가 새삼스럽다. 그만큼 흔히 쓴다. ‘충(蟲)’이라는 새로운 접미어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단번에 깎아내리려면 ‘지방충’이라고 부르면 그만이다. 충은 실제 벌레처럼 어디에나 들러붙을 수 있다. 혐오는 쉽고 간편하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게 느꼈던 이 말들이 부지불식 간에 어떤 문제의식도 불려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그게 바로 혐오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혐오 표현은 도처에 자욱하게 깔렸다. 세대·인종·계층·지역 간 반목이 없었던 시대가 언제는 있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갈라쳐 상대를 찍어누르고 증오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마저도 걸림돌로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전제한다. 혐오가 세를 불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알고 있다.

해충처럼 창궐해만 가는 ‘혐오의 일상화’를 경계하고, 최소한 혐오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환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혐오의 드러난 각종 양태와 해악을 두루 살펴보면, 그 속에 감춰진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도 모색하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 [혐오를 혐오한다②]

흑인 여성 “한국, 혐오가 일상…직업 소개소도 냉대”  
 호남 비하 말 내뱉고 스스로 놀라…“내가 왜 그러지”  
 “나도 맘충 아닐까” 아이와 나갈 때마다 남들 눈치



지난해 5월 한국에 온 카메룬 출신 레이철 아제(25)는 한국에서의 첫 날을 잊지 못한다. 기차에 탑승한 그를 향해 한 중년 남성이 한국어로 반복해서 소리쳤다. 당시 아제가 아는 한국어는 ‘좋은 아침’ 뿐이었다. 다른 승객이 그 남성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거친 한국어가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제의 한국 생활은 이처럼 혐오발언과 함께 시작했다.

그는 뉴시스 기자에게 “한국에서는 혐오

가 일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짚어 말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매일 여동생과 함께 대입역에 있는 일자리 소개소에 가요. 하지만 일하기는 쉽지 않아요. 업체들은 우리 인종을 물어본 뒤 아무렇지도 않게 ‘흑인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교실에서, 카톡에서…사랑에서 혐오가 판친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일상화된 혐오는

페미니즘을 향해 있다. 장소와 세대를 불문한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 대화에도 스마트폰 메신저에도 널민 게 페미니즘 혐오다.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 페미니즘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일부 남학생들은 “메갈X들 얼굴 좀 보자”며 동아리를 홍보한 여학생들이 있는 교실 문을 열어젖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동아리 소속 민모(16)양은 “페미니즘에 무지한 남학생들이 ‘메갈X 쿡롱쿡롱’ 등의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다 보니 여학생들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의견을 말하기를 꺼린다”고 전했다. ‘메갈’은 국내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시초인 ‘메갈리아’의 줄임말로, 현재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인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엔 ‘여혐(여성혐오) 공격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학생들이 넘쳐난다. 한 학생은 혐오발언을 당한 적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페미질하면 물가(물래카메라) 더 찍어버린다’는 말도 하더라. ‘페미들은 미쳤다고 하는 애들 정도는 흔하다’고 답했다.”

청주청년회 페미니즘소모임 ‘행동하는 페미니스트’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장모(35)씨는 “내가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내 파트너(남편)를 불쌍하게 본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평등해지려고 노력하며 사는 데도 네 남편은 기도 못 펴고 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했다. 그는 “페미니스트는 성적으로 개방적이지 않나면서 오히려 더 성희롱을 거러김 없이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일상적 혐오에 전연돼 나도 모르게 내뱉는 혐오 표현

일상이 범람하는 혐오 표현에 몰드는 건 순식간이다. 야구팬인 최모(30)씨는 얼마 전 직장 동료와 대화 중 ‘7시 방향’이란 말을 내뱉고 스스로 화들짝 놀랐다. ‘7시 방향’은 일부 야구 커뮤니티 네티즌이 광주·전라도가 연고지인 KIA 타이거즈를 깎아내릴 때 쓰는 말이다. 광주의 위치를 애들러 지칭하며 비꼬는 의미다. 같은 목적으로 ‘그쪽’ ‘그쪽’의 전라도 사투리(‘똥’, ‘똥’, ‘해외’ (전라도는 한국이 아니라는 비하)이라는 말도 있다.

최씨는 “나 자신을 스스로 굉장한 상식적일뿐 아니라 소수자에게 열려있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온라인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번도 쓴 적이 없는데,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을 하도 보다 보니 일상 대화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썼다. 너무 충격이었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30)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처음 태극기 집회가 등장했을 때 일부 극우 노인들을 온라인에서 ‘뿔뿔’으로 부르지 않았나. 좋지 않은 표현인데도 여기저기서 쓰이는 걸 반복적으로 봐오고 익숙해져서 그런지 최근길 지하철에서 노인을 보면 ‘뿔뿔’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털어놨다.

◇약자들이 ‘자기 검열’ 하게 만드는 혐오

‘혐오의 일상화’는 소수자·약자의 자기 검열을 강제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일반

적인 상식에 기준을 두고 행동하지 못하고 ‘혹시나 누군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자기 행동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맘충’ 논란이 대표적이다. 맘충은 엄마를 의미하는 ‘맘(mom)’에 벌레 ‘충(蟲)’을 결합한 신조어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 엄마란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갖가지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문제는 이 단어의 대상이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거나 해도 맘충이라고 부르고,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자체를 맘충이라고 지칭하는 식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 전체를 마치 사회에 해악을 주는 존재 쪽으로 여기는 세태를 인터넷 커뮤니티 한 두군 데만 들어가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28개월 딸을 둔 도모(30)씨는 “아이와 지하철을 타면 앉았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일부러 문 앞에 선다”며 “혹시나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심스럽다. 최근에는 애 엄마가 대중교통을 타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혐오는 약자나 소수자들은 막 대해도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결국 혐오는 이 사회의 촘촘한 위계의 서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혐오를 유머코드로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러면서 나의 적이 누구인지, 누구를 짓밟고 있는지 느끼며 권력 지표를 나눈다”고 설명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